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션 3, 구약성경에서의 성령의 역사

© 2024 로버트 피터슨과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루기를 기대하며 성령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며, 성령의 성격과 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창조에서의 그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의 그의 일을 다루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약의 기록을 예언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미리 입증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 구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4:17, 15:26, 16:13으로 넘어갔으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지만, 진리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사도들을 미리 입증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전파하고,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신약성경 문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역할을 하게 되고, 굴러갈 자리가 있게 됩니다.

성령은 성경의 제작에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20과 21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변형 이야기를 언급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여러분에게 알렸을 때 교묘하게 고안된 신화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16, 우리는 그의 위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을 때,

위엄 있는 영광으로 인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나온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번역과 주해자들은 여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더욱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성경의 예언을 입증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며, 절대적으로 사실이지만,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설자가 저와 동의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경험보다 더 권위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번역했고, 우리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경험에 호소했고,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피터가 그럴지도 몰라요. 평소처럼 그는 대변인이기 때문이죠. 그는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초막 셋과 천막 셋을 만들자고요. 오, 세상에, 피터.

그래서 그는 보고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31,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위해 서 있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위해 서 있었습니다.

루크는 율법과 인격화된 선지자들이 예수와 함께 서서 그리스 세계에서의 그의 탈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번역할 수 없고, 우리는 떠나거나 죽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의 탈출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말장난입니다. 그것은 탈출이 예수의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위대한 행위, 구약의 위대한 구원 행위, 이집트

속박에서의 탈출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예수의 속죄의 반대 유형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습니다. 여기에 율법과 그것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4장이 변형산에서 일종의 예언적 행동을 한 것과 같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구약을 확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번역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는 등불이 새벽이 밝아지고 아침 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의 예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 그리고 예수의 위대한 변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성경의 예언은 누군가의 해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선지자 자신의 해석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으로부터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씀을 내놓으실 때 그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말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통된 또는 코이네 그리스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영감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교리의 하위 집합인 것 같습니다.

신은 소통하지만, 신은 소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은 동시에 신성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는 저자는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악, 오류, 악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으로부터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경의 생산입니다. 인간들이 썼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다른 스타일과 관용어와 어휘와 강조와 목적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여 그의 말씀을 생산하고 오류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런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성령을 오순절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으로 시대착오적으로 언급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전서 1:10과 11은 선지자들이 말할 때 가끔 머리를 긁적였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을 말하면서 그것을 썼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그는 자신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아삼 , 희생제물입니다. 인간은 죄의 제물입니다. 그것은 터무니없습니다.

하느님은 인간 희생을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0절, 여러분에게 있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 곧 신약의 믿는 자들은 주의 깊게 탐구하고 탐구하며,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을 예언할 때 어떤 사람이나 때를 가리키셨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계시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한 자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들이요, 천사들이 살피고자 하는 것들이니라. 다시 한 번, 성령은 사도들의 전파에 관여하지만, 그것이 여기서 우리의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을 미리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오순절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여하는 것을 예상하거나 회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예언적 베드로가 그들이 그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이거나, 그가 의도적으로 시대착오적으로 말하고, 오, 우리는 그들이 가진 그 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여하신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영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글을 썼지만, 그들이 쓴 글은 때때로 그들이 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즉, 성령은 창조와 성경의 생산에 일하셨습니다.

성령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합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장비하고 힘을 줍니다.

그는 다시 예언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는 강화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는 이 모든 방법과 그 이상을 예언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장비하고 능력을 부여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위한 청사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일으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베살렐과 아홀리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1:3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1, 보라, 내가 유다 지파의 우리의 아들 훌의 아들 베살렐을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능력과 총명과 지식과 모든 공예 기술을 채워서 예술적인 디자인을 고안하고, 금, 은, 놋으로 작업하고, 보석을 깎아 박고, 나무를 조각하여 모든 공예를 하게 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장인 베살렐에게 장막을 장식할 예술 작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35:31은 또한 이 사람과 그의 선물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5:30,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의 우리의 아들, 훌의 아들인 베살렐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과 기술과 총명과 지식과 모든 공예로 채워 주셔서, 예술적인 디자인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놋으로 작업하고, 세팅을 위한 보석을 깎고, 모든 공예로 그를 위해 나무를 조각하게 하셨습니다. 거의 반복입니다.

성령은 구약에서 장비하고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장비하고 능력을 부여합니다. 민수기 27:18,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18, 눈의 아들 요수아를 데려가라. 그는 영이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에게 위임하라. 너는 그에게 네 권세의 일부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그의 말에 따라 그들은 뛰어내리고, 그의 말에 따라 그들은 들어올 것이니, 그와 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와 함께 온 회중이 다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물론 모세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려운 일을 위해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세를 따르고 싶습니까? 당신은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까? 어머, 그건 나쁘네요.

나쁘네요. 다윗 왕, 사무엘 상 16장. 다윗은 큰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아들들을 시험해 보는데, 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입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들, 그들은 모두, 아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남은 자식이 있나요? 음, 양을 지키는 작은 남자가 있어요.

사무엘상 16:13.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에게 임했다.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갔다. 하나님은 그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신다. 구약에서 그는 여호수아(민수기 27:18)와 다윗(사무엘상 16:13)에게 적어도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영을 크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판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 사사기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저는 최근에 그것을 평생 공부한 사람으로부터 소위 주기가 실제로 회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너무 비참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포함할 뿐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책 전체에서 회개한 후에, 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반역의 순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다시 진흙 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트니엘, 사사기 3:10.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구절, 이스라엘 백성, 죄송합니다, 사사기 3:7,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스토렛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불붙었고, 그는 그들을 이교도 왕의 손에 팔았고, 그들은 8년 동안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키셨고, 그는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케나즈의 아들, 갈렙의 남동생인 옷니엘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사기 3:10.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갔고,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샤 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고, 그의 손이 어려운 이름을 가진 그 왕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40년 동안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 케나즈의 아들 오트니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반역적인 백성에게 친절하고 관대하십니다. 기드온, 6장 33 절.

이제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덮었고 그는 나팔을 불었고 아비에스 사람들은 그를 따르도록 불렸습니다. 그는 므낫세 전역에 사자들을 보냈고 그들은 그를 따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게 사자들을 보냈고, 그들은 그를 맞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양털 사업에 착수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많은 믿음을 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님은 이 부분적으로 충실한 재판관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삼손.

선물과 선물의 낭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당신도 나처럼 히브리서 12장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에 놀랐을 겁니다. 그의 승리의 끝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삼손을 택했을까요? 오,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낭비했는가. 사사기 14:5.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팀나로 내려갔고, 그들은 팀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들이닥쳤고, 그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린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성 동반자를 찾고 있다고 할까요.

19절,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 성읍의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고 수수께끼를 풀 자들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격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의 동료에게 주어졌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내에게 굴복하여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했고, 그녀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기를 졌으므로, 그는 잃은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참으로 성급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15:14도 하나 더 있습니다. 삼손이 리히에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맞으러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들이닥쳤고 그의 팔에 묶인 밧줄이 불이 붙은 아마와 같이 되었고 그의 손이 녹았고 그의 결박이 그의 손에서 녹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묶어 두었다. 그리고 그는 나귀의 신선한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고, 그것으로 그는 천 명을 쳤다. 그리고 삼손은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나는 천명을 쳤다.

구약에서 성령은 지도자, 재판관, 왕에게 성공적인 군사적 공적을 위해 장비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사무엘상 11:6. 문맥상 암몬 사람 나하스, 11. 1이 올라와 야베스-길르앗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테니, 내가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내어 온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안겨주겠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그에게 우리에게 7일간의 유예를 주고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너희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백성들의 귀에 그 일을 전했고,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제 보라, 사울이 소를 따라 밭에서 오고 있었고, 사울은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1:6. 그리고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분노는 크게 불붙었습니다.

그는 소 한 명에를 취하여 조각내어 사자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이르되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소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리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라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더라

그는 그들을 소집하고, 주님은 사무엘에게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강력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실, 시편 139:7은 특별한 지도자들을 장비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에서는 흔치 않은데, 1인칭 단수입니다. 오, 그런 시편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애가의 시편, 다윗이 도움을 간청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예배와 성찰의 시편이고, 물론 이스라엘의 공동 예배에서 불러졌지만, 오 주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고 아셨습니다 등등입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웠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그 말을 할 수 있었으므로, 그것은 개인적이면서도 단체적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왕이나 통치자 또는 재판관을 장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임재입니다.

7절 : 내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당신의 면전에서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당신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세울 에 내 자리를 마련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높이 올라가도 당신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무덤에 가도 당신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아침 날개를 타고 바다의 가장 끝 부분에 거하더라도, 바로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한 올라가더라도, 무덤으로 내려가더라도, 아침에 출발하여 내 눈이 볼 수 있는 한 바다를 건너 멀리 가더라도, 어디에서나, 주님,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위로하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임재입니다. 보시다시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영은 다윗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비난받을 만하고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바르자마자, 그날부터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기름을 바르자, 그 영이 그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도 그 영이 활동했습니다.

사무엘하 23:2.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신탁입니다. 23:1. 높이 세워진 사람의 신탁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공의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스리면, 그는 아침 햇살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에 비치는 태양과 같고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비와 같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가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음이니라. 그리고 그는 나아간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도록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영이 그에게 임하여 달려들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영이 그의 입을 통해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큰 다윗,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영의 역사에 대한 구약의 기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인간을 통한 영의 역사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우선 예언은 선지자들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예언은 때때로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로, 예언적 신탁과 함께 급상승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예언합니다. 민수기 11:16.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네가 백성의

장로와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아는 사람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 데려가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거기서 너와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있는 영, 대문자 s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고, 너 혼자 그것을 지고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2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천막 주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던 영을 조금 취하여 70명의 장로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그들은 예언했지만, 계속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렀는데, 한 사람은 엘닷, 다른 한 사람은 메닷이었고,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거기서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불평할 때, 주님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어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경우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황하게도 예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 인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예언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발람의 입술에서도, 명예의 전당에 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아니면 적어도 그 중 하나에서, 고라의 반역과 발람과 구약성경의 세 번째 악한 인물과 함께 수치의 전당에 들었습니다.

민수기 24:2. 발람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심을 보고, 다른 때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얼굴을 향하였다.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말을 이어가며 이르되, 베올의 아들 발람의 신탁

이로다. 눈이 열린 자의 신탁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신탁이로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엎드리는 자의 신탁이로다. 야곱아, 네 천막이 얼마나 사랑스럽도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고용되었지만,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진영은 멀리 뻗어 있는 야자나무 숲과 같고, 강가의 정원과 같고, 주께서 심으신 침향나무와 같고, 물가의 백향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며, 8절을 건너뛰시니, 그것은 그에게 들소의 뿔과 같습니다.

그는 웅크리고,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엎드렸습니다. 누가 그를 깨울까요? 당신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당신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를 고용한 왕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신이 당나귀를 통해 말씀할 수 있다면, 신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발람을 통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와 그의 사악한 길에 대한 신의 비난을 받습니다. 비록 신, 이 성령이 마지못해 발람을 통해 말씀하셨지만요. 성령은 때때로 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언을 준비하고 능력을 주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는 또한 구약에서 강화하고 격려합니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성령은 아사 왕이 유다에 영적 쇠신을 가져오도록 격려했습니다. 역대기하 15:1. 하나님의 영이 오렛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그는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은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그를 찾으면 그는 당신에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버리면 그는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를 찾았더니, 그가 그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7절. 그러나 너희는 용기를 내라.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네 일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사는 오벳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인 이 말을 듣자마자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빼앗은 성읍에서 가증한 우상을 치우고 여호와의 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그는 영적 쇄신과 칼을 가져왔다.

아사는 적어도 대부분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과 그를 강화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영에게 돌아갑니다. 제사장 여하시엘을 통해 영은 여호사밧을 움직여 유다의 적들과 맞서고 주님의 승리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역대기 하권 20장 14절. 그때에 주의 영이 여하시엘에게 임하였는데, 여하시엘은 스가랴의 아들이요, 스가랴는 브나야의 아들이요, 브나야는 야엘의 증손이요, 마타냐의 증손이요, 아삽의 자손 중 레위 사람이요, 회중 가운데서였다. 그가 이르되, 들으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오르막길로 올라올 것이다. 너는 그들을 골짜기 끝, 여루엘 광야 동쪽에서 발견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굳건히 서서, 너희의 위치를 지키고, 너희를 대신하여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대적하여 나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들과 고핫 사람들과 고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물론 주님은 제사장 여하시엘이 가져온 말씀에 따라 구원을 가져오셨고, 성령은 그 모든 것에 관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의 선지자들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7:12,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백성을 강화하십니다. 학개 2:5,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스가랴 4, 6에 따라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만군의 주, 하늘 군대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장비하고 능력을 주고, 예언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하고 격려하고, 예언하고 예언합니다. 성령은 예언합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있는 이사야 40장, 그리고 그것은 나쁜 참조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사야 48:16, 저는 여기서 갑자기 파업을 합니다. 이사야 42:1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불드는 내 종을 보라,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노라. 그는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희미하게 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그는 충실하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땅에 정의를 세우고 해안가가 그의 법을 기다릴 때까지 기진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메시아를 그의 종, 그의 택함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를 기뻐하며 그에게 정의를 가져올 영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1장도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물론, 공관복음서는 제가 방금 읽은 불타는 심지를 끄지 말라는 것과 그런 종류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61:1도 유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사역에서 직접 이것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1,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시 영이 있습니다.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에게 감옥의 풀림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애통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머리 장식을 주고, 애통함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고, 희미한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어 그들이 의의 참나무라 불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주님의 계획이시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주님의 영은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탈출 후 반역하고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 영이 이스라엘에게 변영과 변화와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사야 63:10에 따르면,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여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원수가 되어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백성의 불신앙과 반역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변영과 변화와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32:15. 궁전은 버려지고, 인구가 많은 도시는 황폐해지고, 언덕과 망루는 영원히 굴이 될 것입니다. 들나귀의 기쁨, 양 떼의 목초지.

이사야 32:15.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광야가 비옥한 밭이 되고, 비옥한 밭이 숲으로 여겨질 때까지.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의가 비옥한 밭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의의 결과는 평화가 될 것이고, 의의 결과는 평화, 고요함, 그리고 영원한 평화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44: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심지어 주로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또한 예언을 합니다. 그는 예언적인 예언을 합니다.

44:1.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시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형성하시고, 너를 도우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붓고 마른 땅에 시냇물을 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 주고 네 후손에게 내 복을 부어 주리라. 그들은 풀밭 가운데서 과부같이, 흐르는 시냇가의 버드나무같이 돌아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21.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쾌하게 여기시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고, 축복하고, 번영을 주고, 원수에게서 구출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곳입니다.

나에 관하여는 이사야 59:21.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네 입에 둔 내 말은 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네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네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서도 성령을 통하여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고, 그들 안에 그의 영을 넣어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 :26-27.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잘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들 안에 두심으로써, 그들이 국가적으로 살고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7:14.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를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그의 영을 부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가져오리라

에스겔 39:29.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줄 때,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선언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요엘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실 것을 예견하고, 놀라운 결과를 거두시리라. 요엘 2:28 이하.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딸이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그 날에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고 피와 불과 연기기둥을 보이리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두움으로, 달은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약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조사를 마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 사도들, 세상, 그리고 특히 주 예수님의 삶, 사역, 죽음, 부활에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